

평화 의 아 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회

'78 8월호

이해하며 삽시다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여 준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모두가 좋게 보이고 어디서든지 화목이 이뤄지고 범사에 형통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명사는 이해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의 짜증 부리는 것을 이해하여 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남편의 신경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위하여 간구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23:34)

“내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인 줄을 알았던들 저들이 나를 죽이지 않았을 것인데 모르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것이오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박아 죽이는 원수까지 이해하여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곳에는 이해심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어떤 날 밖에 불 일이 있어 나가셨다가 밤 늦게야 집에 왔습니다. 부인은 기다리다 지쳤을 뿐 아니라 아마 남편이 주무시고 오시나보다 생각하고 태문을 열고 들어가 잠들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장로님이 무려 20분 30분 동안 문밖에서 태문을 두드렸지만 열려 줄 리 없었습니다. 할수없이 장로님이 담을 뛰어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자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지요.

“도대체 이놈의 집구석에 여편네가 있나 없나?”

화가 잔뜩 나서 문을 확 열어 보니 기막힌 현상이 눈에 나타납니다. 아내가 잠이 들었는데 입을 한껏 열려졌고 사지는 큰대(大)자가 되어서 코를 드르릉드르릉 굴며 잠을 잡니다.

그러지 않아도 화가 잔뜩 났는데 여자가 잠을 자도 좀 예쁘게 잘 것이지, 이게 무엇입니까? 화가난 장로님이 부인을 차버리려고 다리를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그 때에, 얼핏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래,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건만 잠든 내 아내여, 태문을 20분 30분을 두드려도 그 소리마저 못 듣고 잠자는 내 아내여, 얼마나

피곤하였으면 이렇게까지 인사불성이 되었을까?” 측은히 여기며 아내의 하루 일과를 한번 계산해보았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에서 마당으로 내려오고, 마당에서 부엌으로, 부엌에서 장독으로 장독에서 부엌으로, 작은방에서 부엌에서 큰방으로, 큰 방에서 작은 방으로, 그 다음에 질레를 빨고 왔다가 기저귀를 빨고 갔다가, 왔다 갔다 하루종일 쫓아다니는 것을 줄잡아 따져보니 아내의 하루길이면 집안에서만도 오십리는 될 것 같다. 그 오십리도 평지가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꾸부렸다 갔다가 이렇게 하루종일 고되게 쫓아다니고 보니 일을 할 때에는 일한다고 피곤을 모르는데 일단 잠자리에 들어가 보니 「날 잡아 가거라」하는 식이 되었구나. 남자는 힘으로 일하고 여자는 악으로 일한다 하더니 참 내 아내의 악착같지! 남자는 일하다가 힘이 떨어지면 쉬어 버리는데, 여자는 그렇지 않아, 한번 일을 시작해 놓으면 허리를 졸라매고 악으로 끝장을 보고야 말아.

장로님이 여기까지 계산하고 보니, 사랑하는 아내의 잠자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다리를 슬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이해하여 준다는 말입니다. 목사님도 사람이고 장로님도 사람이고 전도회 회장도 사람이고 성가대 대장도 사람이고 청년회 회장도 사람인데, 알장서서 일하는 사람도 사람인데 어찌다가 실수가 없겠습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여 준다는 말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모두가 좋게 보이고, 어디서든지 화목이 이루어지고, 범사에 형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이해하는 성도가 되어 성전 건축과 선교사업 그리고 천국일군을 키우는 데에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잔)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월간 증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8월의 행사

8/1-2 장년부 수양회
 1-5 대학부 수양회 2-5/성가부 수양회
 8/6 정기제직회, 재정위원회
 8/7-10 유치부 성경 학교
 8/7-11 고등부 하기수양회
 8/13 월간증현 8월호 발간
 8/13 남전도회·권사회·산업전도회 월례회
 8/15-16 영아부 성경 학교
 8/14-18 농어촌 전도대 파송 (9곳)
 8/14-17 초등부 어린이수양회 (5학년)
 8/20 여전도회·출판위원회 월례회
 8/21 교육위원회
 8/21-22 노년부 하기수양회
 8/27 구역권찰회, 전도위원회 월례회
 8/29 정기당회

제 6 권 제 56 호

월간 증현

8월호 차례

<권두언> 이해하며 삼시다/주간	2
<이달의 말씀> 나라를 위한 기도/김창인목사	4
<이렇게 답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정기성목사	6
<특집 I / 농어촌 파송 전도대>	
① 농어촌 전도대 파송의 의의와 그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언/이양우전도사	7
② 농어촌전도대 파송의 효과분석/편집실	9
<특집 II / 8·15를 맞으며>	
교회와 국가/홍반식박수	11
<집게 풀어쓴 기독교 교리 ⑥>	
죄에 대한 심판/이성근목사	15
<1200자 칼럼> 8월/고제원집사	16
<찬송가 감상> 영혼을 건지는 열십은	16
<도서정보> 7월에 구입한 도서등	17
<책 소개> 구약개론/이준교전도사	17
<시편에서 즐기는 주간의 만나>	18
<해외선교 소식> 안정과 성장속에서 활동	19
<독자의 글> 평신도선교/차신득집사	20
모순덩어리/김광배	20
<구역장 노트 ③> 임종과 장례를 듣는길 ② /백성룡목사	21
<구역공과> 9월분	22
<교회소식>	24
<편집후기·광고>	26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27

표지설명 : 8월의 뜨거운 열기속에서 농어촌으로 파
송된 전도대원들.

증현교회 신조

우리는 정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
스터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나라를 위한 기도

—다니엘에게서 배웁시다—

성경/다니엘 6:10-18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해방이 된 지 30여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한 해방을 얻지 못했습니다. 삼천리 반도인 우리나라는 허리가 끊겨져 복한은 과거 일본 때보다 더 무섭고 악독한 무신론자들인 붉은 공산당에게 발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문은 닫혔고 찬송을 못 부르고 있습니다.

4년 전 월남이 적화되고서는 혹시 김일성이 불장난질을 시작할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기도 했습니다. 이 불안이 완전히 가셨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편안하다 괜찮다고 말하지 못할 만큼 아직도 위험한 요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1운동 때 기도하고 피흘린 값을 하나님이 선물로 8·15 해방을 주셨는데, 왜 아직까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조금 자유를 주신 남한땅에서는 어디서든지 추악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따져봐도 교파싸움 또 지방싸움 등 이런 저런 일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8·15가 있는 이달에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해방된 지 30여년이 넘었는데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는 그만둬도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북한에 못 가면 자손이라도 가게 기도는 쌓아 뒀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니엘에게서 배우십시오.

1. 나라 위한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합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조상이 범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둘째는 지금 우리 백성이 범하고 있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세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짓는 날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1) 고향에 돌아가 성전짓게 해주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할 때에 저 북쪽의 김일성이 못 내려오게 우리나라의 안보가 튼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요. 그 기도도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도 다니엘처럼 한 계단 올려서 "하나님! 언젠가는 저 북한땅에도 백두산 소나무를 적어

예배당 지으며 할렐루야를 부를 때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신자의 위치에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2)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앞에 나타나게 해주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악마의 줄도 공산당 무리는 회개를 시키시든지 처치해 주시든지 하시고, 이 민족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석유가 뿜어 쏟아져나와 대학교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고 다니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긴 하세요. 그러나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3) 자손만대에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해주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나라의 자손들은 우리처럼 쓰디쓴 잔을 안 마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자유롭게 사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자손 만대까지 악한 자가 다시 손 못대는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힘써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2. 나라 위한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1)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왜 나라를 잃었느냐? 죄값으로 잃었습니다. 의사가 치료할 때에 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일본이 강해서입니까? 아니요, 조상 때부터 쌓아 놓은 죄가 망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죄값으로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한 기도의 첫 문이 회개입니다. 신자는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제사장직의 위치에서 불신자의 죄도 회개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조상들이 범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백성들이 범하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나라를 위해서 우는 눈물은 한 방울도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3·1운동 때 갇히고 죽임당한 그 죄값이 우리나라에 이만쯤이라도 해방을 주었다면, 오늘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진정 회개하여 뜨거운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2) 꾸준히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며칠간만 특별히 기도하고 그만두는 기도가 아닙니다. 끈기있는 꾸준한 기도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에 돌아가 예배당 짓고 이 땅에서 공산당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라도 또한 세계 1등 국가가 된 후에라도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 시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을 열어 놓고 하루에 세번씩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 몇 날을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세번씩을 날마다 탈마다 해마다 계속하는 기도입니다. 꾸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습니까. 큰 고개가 있을 가로막기도 하였습니까.

다니엘은 신하들의 모함을 받았습니까. 국무총리가 될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발자국에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기도를 계속하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은 사람이 무섭다고 기도를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꿈같이 미련한 고집장이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미련하리만큼 고집을 부려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생활입니다.

인류역사에서 다니엘의 두뇌를 따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창을 열어 놓고서 기도합니까? 이것은 "나 하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에 못 돌아가면 죽은 뒤에 남아 있는 내 백성들은 돌아갈 때를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만 중심한 기도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 예배당을 지으려 할 때에도 "내가 다니기 좋고, 내가 편하고....." 이런 케케묵은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후손이 복 받겠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남아 있는 백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후손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을 것을 작오했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죽음의 제물이 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눈물을, 피를 바치는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3) 자기의 책임에 충성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의 책임도 다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장사나 농사를 그만둬도 되느냐? 기도하기 위해 공부도 그만둬도 되느냐? 아니요! 기도하면서 사생활과 책임에 불신자보다 더 많이 충성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꾸준한 기도를 하면서도 각 나라 사람들이 공부하는 중 최고의 우등상을 탔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에는, 한번 혼났으니 그만두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기도가 계속됩니다. 기도를 계속하면서 국무총리의 책임에도 충실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부흥회에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어린애들에게 배물은 옷을 입히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생각해야 돼요! 신자의 생활은 기도나 전도를 핑계로 내 가정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활이 남보다 추잡하면 안됩니다. 공부원생활, 회사원생활이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지면 안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육신의 책임도 앞서는 모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4) 화목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화목하는 기도란 서로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박사장(博士長)이 될 때에, 자기가 놀라운 영광을 누릴 때에 자기의 친구들을 잊어버렸습니까? 아니요! 자기의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특별히 추천해 도지사가 되게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제가 잘되면 자기 친구는 밟으려고 그러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너도 나도 잘 되어야 우리 후손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못되고 더러운 민족성은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격만 되지 않으면 싸우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멸망의 죄가 되고 사람들 앞에서 멸망시키는 죄가 되면 그자가 끊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화복을 도모합니다.

화복이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것인데, 자기가 실수했을 때에 "나 잘못했어"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화복이란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말자"하며 용서하는 것이 화복입니다. 하루에 일곱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합니다. 내 잘못은 핑계하고 남의 잘못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화복있는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을 심어 놓으면 반드시 땅위로 솟아납니다. 신자의 생활은 꼭 오늘 뭘 얻으려고 하는게 아니요, 10년 후에 되어도 좋고 내가 죽은 뒤 후손이 복을 받아도 좋다고 해야 됩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네가 네 민족에게 돌아가 예배당 짓는 때 주마고 허락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를 위한 기도제목을 올바르게 세우고 회개의 눈물과 나라를 위한 안타까운 정성의 눈물을 꾸준히 하나님의 병에다 제워야 됩니다. 우리는 사생활이 불신자보다 앞서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화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교회는 잘되고 남의 교회는 안되어도 괜찮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다 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파싸움을 못합니다. 모든 교회가 잘되기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라가 복을 받으며 우리 후손도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이렇게 답한다 ■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자만이

정 기 성 목사

(전도위원의 지도)

편지의 내용/요즘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건강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대학 의예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다움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이와같은 저의 생각들에 대해서 저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의예과에 다니는 중입니다만 너무나 많은 의학공부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몸이 심하게 아팠는데 아직 완쾌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의학공부가 저에게는 매우 벅차게 느껴집니다.

며칠 전에는 의학공부를 포기하고 다른 과로 전과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조언을 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요점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의예과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첫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성경에 "누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측량하겠느냐"고 하시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사는 목적, 삶의 참된 가치, 우주의 근원 죽은 후에 일, 인간의 참된 가치, 하나님의 사랑, 삶의 선한 방법, 악마의 방해가 무엇인가? 인간의 악점 등등 여러가지를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누가 잘 알고 그 뜻을 따

라 자신있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큰 줄거리는 말씀할 수 있어도 개인문제는 큰 줄거리(성경사상)안에서 개인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해결이 됩니다.

둘째로 의예과를 전과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문제는 앞에서 말씀한대로 누구도 형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할 자는 없고 형제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형제를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선생이 있다면 그분의 조언을 받을 수 있겠지요.

현재의 과는 그자체가 하나님 앞에 또한 인류에게 좋은 봉사할 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 좋은 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형제의 소결과 제철에 맞는지는 형제가 더 잘 알겠지요. 아무리 유덕한 학과라도 형제에게 본래 하나님이 주신 제철이 없으면 곤란한 점도 있겠지요. 그리고 주위환경이 6년을 공부할 수 있는 여유와 인턴과정과 레지던트과정을 밟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지 이런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상의 모든 어려운 조건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 서원이 있어 이같은 공부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기고 힘들지만 공부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찌했든 전과는 형제가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중 지혜를 얻어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어촌전도대 파송의 의의와 그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언

이 양 우 전도사

<충선연구원 1년·세신자부 부지도>

"말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붙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이사야 40:6-9).

위의 말씀을 좇아서 올해도 제 8회째로 농어촌전도대를 파송하게 되었다.

한국 보수주의 교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우리 충현교회에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물리는 일과 한국 교회에 위해 크게 모범된 일을 개척해 나가는 일이 있으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해외 복음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것과 또 국내적으로 올해로서 제 7회가 되는 농어촌 평신도 지도자 초청훈련이 그것이고 또 올해로 제 4회로 맞이한 농어촌교역자 초청훈련 그리고 올해 8번째로 파송되는 농어촌 전도대 파송동이 바로 충현교회가 크게 자랑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한국교회에 크게 모범된 일들 중에 특히 농어촌 전도대 파송의 의의와 그 효과적 운영을 위한 필자의 제언을 기술해 보려 한다.

1. 농어촌 전도대 파송의 의의

첫째 농어촌에 전도대를 파송하는 것은 도시교회와 마땅히 행해야 할 사람의 실천이다.

도시마다 특히 신흥도시나 대도시의 교회마다 부흥되고 있고 특히 서로 다투어 가며 교회 건물의 미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어촌의 교회들은 실한 영적 인적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속에 잠자고 있는 시골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충현교회가 그 잠을 깨우려 간다는 것은 도시교회로서의 충현교회가 여러가지 자체의 중대한 과제를 뛰어 넘어 모범적으로 어려운 농어촌의 교회들을 돕는 이 일은 무엇보다 귀중한 사람의 실천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농어촌 전도대의 파송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의 순종이라는 점에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8-20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부활후 승천 이전에 우리에게 부탁한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나의 증인

이 되라"는 그리스도의 유언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농어촌 교회 자체에는 지도자의 구체적인 전도전략이 없어 농어촌에 있는 많은 우리동포들이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농어촌 전도대 파송은 우리 세대의 귀중한 긴급한 사업이라 하겠다.

세째 민족 복음화의 지름길의 하나가 바로 이 농어촌 전도대 파송이라 하겠다.

민족 복음화는 어떤 구호나 말에나 어떤 의침에 있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좇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전국 방방곡곡에 나가 땅과 눈물과 정성을 뿌려 기쁨의 복된 소식을 계속하여 증거하는 데 그 지름길이 있다. 즉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데 그 지름길이 있다는 말이다.

2. 그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언

농어촌 전도대 파송의 효율화를 위해 필자는 크게 다음 3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하겠다.

- (1) 준비의 효율화를 위한 제언
- (2) 실시의 효율화를 위한 제언
- (3) 사후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제언

(1) 준비의 효율화를 위한 제언

① 전도대원의 철저한 훈련이 급선무이다.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의 신앙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고 좀더 귀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전도대원의 철저한 사전 훈련이 필요하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러 가는 십자가 정병에게는 더욱 철저한 준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전도대원의 모집도 5월경에 모집하여 사전에 마음과 환경을 준비케 해야 하겠으며, 7월 중순경에 충현 기도원에서 3~5일 정도의 집중적이고 영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하겠으며 하루 정도는 전 대원이 다 함께 급식하며 철야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다.

또 훈련기간 중에 구체적인 전도전략과 기술을 익히며 충분한 토의와 각 파송 지역별 모임을 통해 하나가 되고 성령과 말씀과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배려해야 하겠다.

②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격언도 있지만, 어느 지교회를 한 번 전도 대상지역으

로 삼았을 때 그곳에 2~3회 정도 집중적으로 또 연속적으로 전도대를 파송해야 하겠다.

지금까지 경기·강원·충청남북도를 일단 한번씩 다 갔다 왔으니, 내년부터는 2~3년 윤번제로 집중적인 전도대 파송을 실시해야겠으며, 될 수 있으면 같은 지도 교역자가 계속 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항상 그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사전 정보 교류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하겠다.

③ 올해부터는 우선적으로 중현교회 지교회들 중심으로 농어촌 전도대가 파송되게 될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농어촌 전도대의 파송을 통해 지교회가 자립에 이르도록 지도·협력·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2) 실시의 효율화를 위한 제언

① 전도할 지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방종교(유교·불교등)에 대해 다름이나 필요없는 논쟁은 절대 금물이다.

왜냐하면 논쟁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게 되고, 또 그들의 마음뿐만 달게 되며, 전도대원들이 철수한 후 그 지교회에 큰 꾀박과 어려움을 끼치는 후유증이 생기기 때문이다.

타 종교에 대한 비방은 기독교의 이단종파가 아닐 경우에는, 피해야 한다. 반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우수성을 강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 전도자의 근본 의무이다.

② 위에서 제언한 바와 같이, 같은 지역에 계속 2~3회 정도 갈 경우 오전에는 전 대원이 속호 전도에 힘쓰고 오후에는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축호전도에 전력하고 지도 교역자를 중심한 다른 팀은 그 지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모아 전도훈련과 농어촌 교회자립책 등을 강의하도록 해야 하겠다(강의 내용과 교안은 전도위원회에서 준비해야 됨).

그리하여 평신도지도자 초청훈련 때 여러가지 사정 상 오지 못한 지도자들과 기타 잠재해 있는 청소년 신자들을 교육시켜 전도대원이 철수한 후에도 계속 결신자들을 돌보며, 또 전도에 힘쓸 수 있고 아울러 교회에 충성할 수 있도록 지도자 훈련을 병행한다면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③ 저녁 부흥 집회는 그 지역 특수 사정에 따라 의무 집회(학교나 교회당 등)도 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겠다.

특히 그 지역 교회에 대한 현 주민의 인식(선입견)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농어촌에는 여름철이 매우 바쁜 계절이기 때문에 낮에 축호전도를 해 보면 주로 노약자와 어린 아이들 혹은 부인들이 집을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불신 장년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복음 증거의 기회가 매우 절실하다. 또 무더운 여름에 땀방 잡지도 잘 되어 있지 아니한 좁은 예배당보다는 공지나 학교 운동장 혹은 강당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물론 사전 준비와 경비가 많이 들 것이다) 매우 효과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따로



남게하여,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환영회 모임을 매일가 지도록 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3) 사후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제언

①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옥토에 뿌려진 씨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거두기 위해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결신자들을 위한 기도운동을 계속하고(최소한 그 해 12월 31일까지 매일 이름불러 기도하기) 개인적인 서신연락을 실시하여 결신자와 개인적인 접촉을 계속 가 지도록 해야 하겠다.

② 구체적인 전도전략과 농어촌 교회의 자립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뜻있는 분들을 모집하여 전도위원회 산하에 두어서 연구 실천하도록 배려해야 하겠다.

③ 농어촌 보조금고를 마련하여 상설배치하며 농어촌 교회 교육자료의 제공 및 개척교회 설립을 체계화하고 아울러 농어촌 교역자들을 위한 도서 보내기 운동을 펼쳐야 하겠다.

올해도 모든 시간과 정성을 바쳐 수고할 주님의 귀한 십자가 징병들을 통해 귀한 생명의 열매가 수없이 주앞에 바쳐질 것을 확신한다.

부디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파송하는 중현교회와 모든 전도대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육의 축복이 갑절이나 임하기를 기도하며, 아울러 우리의 작은 정성과 사랑의 수고를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하루속히 오도록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김 창 인 목사

라디오 방송 설교 안내

매주일 3부예배 상황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아세아방송 1570kHz

매주일 저녁 7시 15분부터

농어촌전도대 파송의 효과 분석

—현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편 집 실

민족복음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지점에서 총현교회
가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전도대 파송은 시대적이고 민
족적인 차원에서 농어촌교회의 부흥과 농어촌 복음화
를 위해 힘써 왔다. 그동안 농어촌전도대 파송은 파송
지역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결신시키고, 파송지역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도의 사명
감을 일깨워 주고 전도방법을 연마시키고, 파송되는
전도대원 개인의 신앙성장을 목적으로 실시하여 오며
후유증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오히려 농어촌 전
도대 파송의 재평가 내지는 효과 분석의 시기가 된 듯
하다. 그래서 목적인 바대로 실시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을 현지 파송된 교회의 지도자들과 결신자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현지의 문제점을 알아 보고자
한다.

1. 결신자 사후보호 문제

「하기불사대」에서 「농어촌전도대」라는 명칭으로 바
뀌 실시할 때부터 예상했던 문제점으로서 이 문제점을
어느쪽에서 계획 실시하여 해결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지 않았기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그
때서 결신자와 현지 교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먼저 결신자에게 본교회의 전도대에 의해 전도를
받으신 후 예수를 영접했습니까?의 질문에 영접했는
가는 모르겠으나 그당시 교회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결신서를 썼다고 응답을 한 것을 보면 영접할 때
까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사후인도자가
있었으면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인도해 줄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되었
었으나 없었다는 것이 결신자 사후보호의 문제점이 되
었다. 결신자의 사후동향에 대한 교역자에게 대한 설
문과 결신자에게 대한 설문에 아예 결신한 후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80%라는 놀라운 결과와 한 두 번
나오다 나오지 않는 경우가 18% 한 두 달 나오다가 나
오지 않는 경우가 1% 계속 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없었으나 한 두교회에서 0.5%정도이며 교
회불사까지 하는 경우도 계속 나오거나 경유와 거의 비
슷한 응답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 사실로 볼때 농어촌
전도대의 결신자명단 작성의 방법과 더 나아가 전도방
법까지 고려해 보아야 할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교역자들에게 농어촌 전도대의 활동사항
중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점에 대한 설문에 약간의 분
들이 바로 외적인 결신자의 숫자에 치중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꼭 인도해 주었으면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을 보면 결신자로 명단 작성 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신자에게 결신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

에 대한 설문에는 인도해 주는자가 없어서 안 나간다
가 많으며 바쁘거나 시골의 전통적인 유교의 사상에
의한 반대로 출석 못하는 등 주위환경의 영향으로 출
석 못하는 경우가 지배적인 응답이다. 또한 교역자들
에게 결신자가 교회와 떨어져 가는 이유를 든다면?의
설문에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비교에 의해 만족을 주
지 못하기 때문과 농번기의 농사일에 바쁘다 보면 시
작부터 출석을 못하게 되니 아예 계속 출석을 못하게
된다고 하며 이는 바로 경제적인 면과 직결되는 것이
기도 하다. 또한 결신자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는 이
유와 결신자의 마음이 쉽게 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또 신앙에 관심이 없기 때문과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며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유와 심지어는 예배
당 건물과 입지조건이 좋지 못한 관계로 결신자가 교
회와 떨어져 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사실로 보아
도 전도대의 전도방법의 재검토와 전도 내용의 재고와
있어야 하며 현지상황과 실정에 맞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신자에게 어떻게 해 주면 교회에 계속 출석할 수
있겠느냐의 질문에는 주위환경이 허락해 주면 출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은 나가고 싶으나 주위환경의
제약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 글북 당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

교역자들에게 본 교회의 전도대가 다녀온 후의 귀교
회나 결신자에 대한 도시 농촌사이에 갖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없느냐?의 질문에는 전혀 없다는 대답이 지
배적이며 본교회의 전도대가 다녀온 후의 귀교회에서
결신자에 대한 교육계획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느냐?
에 대한 설문에는 실시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그다음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상당수에 달했다.

「결신자」의 사후교육 실시의 어려운 점을 든다면의
설문에는 재정적 문제와 교사자질 문제가 가장 큰 어
려운 점이다 라는 대답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면 전도
대 파송 후의 문제까지 고려하여 전도대가 돌아온 후
교육실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어떤
교회에서는 바라고 싶은 내용으로 전도대의 귀대후 한
두 달 동안은 특별 전도대를 파송하여 관리 보호해 주
었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다.

이상에서 결신자의 사후 관리 문제는 먼저 본 총현
교회에서 전도대 파송시 파송되는 지역의 상황(농어촌
실태)을 구체적으로 잘 알아 가지고 파송하여야 하며
주위환경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도
록 전도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세밀한 전도
대 훈련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한번의 파송뿐 아니
라 결신자 관리 보호를 위한 2차 파송도 신중히 연구

고려하여 실시해야 함이 있을 줄 안다.

2. 현지교회 성도의 전도훈련의 문제

중현교회가 농어촌전도대 파송의 두번째 목적이 현지교회 성도의 전도훈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앞서 지적한 바 전도대 파송 결과로 이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시켰느냐를 평가해 보면 중현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전도대 파송의 의의를 알고 있는가? 의 설문에 안다는 사람이 많으나 불행히도 모른다는 대답을 한 경우도 있었다. (교역자 및 지도자) 그리고 안다면 내용을 기록하라고 했더니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한 대답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는 대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본 중현교회가 농어촌 전도대 파송 대상 교회는 교세를 보아 70~100여명의 교인이다 교회당 건물이 있는 교회에 파송하게 되는데 그러한 교회 주위의 전도 대상자의 수에 대한 설문은 교인은 80여명인데 전도대상자(불신자)는 무려 700~1,000명정도가 된다고 답해 왔다. 그러니 신자와 불신자의 비율이 1:10~15가 되는 정도이다 개교회별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인 것이다. 그런데 전도활동 상황을 알아보니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교회가 50% 이상이며 6개월에 한번정도 실시하고 있는 교회가 40% 한달에 한번 정도 전도한다는 교회가 10%정도로 나타났다. 이 사실로 보아 목적이란 현지교인들에게 전도의 사명감을 일깨우고 전도방법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에 부합되지 못하므로 먼저 현지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전도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 농어촌 상황을 잘 아는 현지 교인들에 의해 전도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다.

3. 농어촌전도대 파송의 문제

농어촌전도대 파송은 일단 현지교회의 요청에 의해 파송되는바 활동상황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 본다면 농어촌전도대의 필요성을 파송빈도로 물어 보았더니 1년에 한번 정도 파송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교회가 지배적이며 몇몇 교회가 6개월에 한번 정도 그리고 정기할 사실은 자체에서 할 수 있으니 필요치 않다는 교회



가 2~3교회가 있었다. 파송되는 전도대원의 구성수와 전도대의 전도기간은 현재 그대로가 좋다고 하며 전도 내용은 매우 좋다고 그저 그렇다가 같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보충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농어촌의 정신적 부패를 지적하고 이상을 심어 줄 수 있는 내용과 친교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대답들이다. 전도방법은 좋다고 응답했으면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한 대답은 개인과 개인이 자매결연식으로 신앙을 지도하고 더 나아가 계속적인 서신연락까지 취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방법을 제시했다. 결신자들에게 전도내용과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알기 쉽고 좋았다고 지배적이며 일부 교회에서는 너무 적극적인 듯하다는 응답까지 있었다. 이상에서 보건데 파송시 먼저 충분한 훈련과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하며 상황판단을 잘 하여 실정에 맞는 적절한 방법과 내용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4. 농어촌전도대 파송을 위한 제언

현지교회를 상대로 한 농어촌전도대 파송의 시정사항과 제언에 대한 설문은 매우 성의있는 응답을 해 왔다 내용을 보면 전도대 대원들의 보다 규칙적인 생활과 영력있는 설교자 파송, 사명의식이 충분한 대원의 파송과 시청각교재, 신앙서적, 전도지의 우송및 격려서신 등의 문서전도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전도대 파송후에도 6개월간은 계속적으로 1~2명 정도 계속 파송 해 줄 것과 자매결연식의 계속적인 지도와 관심을 갖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강조되었던 점은 교육적인 내용의 전도방법을 모색하여 먼저 현지교회 성도들을 실력있는 전도자로 훈련시켜 전도요원양성을 하면, 현지의 지역교회가 직접전도를 담당하게 되어 가장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현지의 주민들은 지식부족과 생활의 어려움과 미신성행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이 모색되어야 하며 현지에서의 전도대 파송후의 문제점으로 크게 부각되는 것은 파송후의 결신자 사후 보호관리의 소홀과 교육의 부재를 들 수 있겠으며 본 중현교회에서도 파송 전도대의 철저한 훈련과 준비가 있어야 하며 너무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현지의 사정에 맞게 계획 진행해야 할 것이며 시청각 교재까지 동원하여 실제적인 사실들을 첨가하여 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지 및 본 중현교회내의 파송의 문제점과 현지 결신자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판단 재평가하여 모두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는 명실상부한 농어촌 전도대 파송이 되어 농어촌 복음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교회와 국가

홍 반 식 박사

(전 고려신학 학장)

종교를 형성하는 기본 요소중 하나가 사람이며 사람은 또한 국가를 형성하는 고로 종교와 국가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원시 씨족사회(氏族社會)에서 부족국가로 발전하여 마침내 현 국가제도를 이룬 인류역사를 볼때 국가형성의 기본개념이 지리적 조건과 민족적 입장에서 유래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민족의 종교가 그 민족의 국가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것도 무시치 못할 사실이다. 고대 바벨론에서나 애굽에서는 중요한 신들을 그들의 조상으로 섬겼으니 그 민족의 단결과 국가의 형성이 그 신들에게 대한 신앙에 관련성을 가진다. 현대에 있어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규는 종교문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동 아세아에서 새로운 역사(歷史)를 만드는 아랍민족주의 역시 종교사상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민관계(神民關係)는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신백성(神百姓)의 우각성은 성경 도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음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이스라엘 민족과 그 국가의 형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교훈에다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유대종교 사이에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 현대에 있어서도 유대인이 유대인 됄에 있어서 혈통으로서나 종교로서나 하는 문제에 대하여 유대인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통일을 보지 못한다.

기독교는 전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종교요 선교 초기부터 초국가적 또는 초민족적 성격 위에 성장되었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사이의 관계는 어느 특수한 민족이나 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세상종교가 가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역사를 살펴볼 때 교회와 국가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었으므로 여러가지 혼란을 일으킨 일이 있다.

교회가 정도를 벗어나 국가를 좌우하므로 정치의 주체세력이 된 때도 있으며 반면에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고 내정간섭을 하므로 교회는 주권을 상실한 일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분명치 못하므로 피차 월권적 행동을 취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은 주로 로마교(天主敎)가 권리를 쥔곳이나 국교제도(國敎制度)가 시행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일이다. 교회가 국가로 더불어 불건전한 관계를 가진 때 교회의 순수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며 국가는 국가대로 불건전한 교회 지도자들의 지배를 받을때엔 건전한 정치란 있을 수 없다.

국가세력의 교회지배

국가의 세력이 교회를 지배하는 일은 국교제도가 시

행되는 곳에서 일어나기 쉬운 결함이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하고 구원을 모르는 백성들을 국권으로 강제입교케 하여 교세확장을 시켰던 서방 라틴교회가 급일의 로마교회의 전신이 된것은 옛 이야기로서만 취급할 수 없다. 현대의 로마교회 역시 종교이면서 또 하나의 국가적 행세를 취하고 있다.

국가가 교회로 더불어 한 종교를 형성하려 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 순수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개인은 개인으로서 신앙과 사고에 부자연한 구속을 받게 된다. 기독교의 기본원리는 지상에서 교회란 유기체를 조직하는데 있다기 보다는 개인 개인의 영혼 구원에 있다고 할 것이다. 독실한 신자란 신앙에 대한 사고의 자유를 가지며 신앙에 의거한 행동의 자유를 가지는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신앙 없는 종교제도를 외부세력의 억압이나 자기처세의 도구로서 받아 들인다면 이는 교회란 유기체의 정신적 노예는 될는지 모르나 진정한 신자라 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신자는 자기가 신앙하는 대상을 알아야 하며 성령의 감화로 내부적인 변화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신앙의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에스겔서에 보려는 인간의 구원이 어떠한 조직체나 환경에 관련을 가지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 개인의 신앙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에스겔 14:20) 교회란 한 종교의 규범에다 맞추어서 수집(蒐集)된 인간들을 모아둔 수용소가 아니다. 교회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즉 사고의 자유를 가진 개인 개인이 모인 단체이다. 그러므로 경건된 신앙을 유지하는 복음주의 교회에서라도 교리 또는 신앙문제에 있어서 적잖은 의견차이가 있으며 또 그런 현상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본다.

교회가 국가로부터 특수한 혜택(惠澤)을 입을 때 국가는 교회에다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을 수 있고 교회의 내정간섭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국가는 교회의 무조건 평화를 위주할 것이며 교리적이나 도덕적 문제로 일어나는 분규도 교회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성서에 근거한 토의로써 해결하기 보다는 국법으로 해결책을 찾는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국가의 압력에 무력하여 무조건 평화를 위주하며 성서의 권위와 신학의 가치를 과소평가 하고 교리의 변호를 두려워 하기 쉽다. 영국 사회주의 문학가 웰스(H.G. Wells)는 국력에 의존하여 무력해진 13세기의 로마교회를 평하여 말하기를 13세기의 교회는 허위와 가장으로서 구성된 그 전구조

“교회가 국가로 더불어 불건전한 관계를 가질 때 교회의 순수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며 국가는 국가대로 불건전한 교회 지도자들의 지배를 받을 때엔 건전한 정치란 있을 수 없다”

(全構造)가 와해(瓦解)될까 하는 염려에서 병적으로 초조하여졌다. 교회는 마치 비겁(卑怯)한 여인이 하룻밤을 지내기 위하여 침상에 오르기 전에 침대 밑과 벽장안을 드러다 보라고 부탁을 받은 것처럼 이단자를 찾아내기에 급급하였다”(Crux Ansata p 13) 교회가 영적으로 무력 해지니 신앙의 성장이 없으며 신앙의 열매가 없게 된다. 기독교의 신앙이란 그 객관적인 방면 즉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님의 구원에서 시작하는 것이나 주관적인 방면 즉 인간편에서 이루어지는 중생 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국교제도의 성격은 지방과 교파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일반적 견지에서 말한다면 국가의 원조로서 교회를 유지하니 교인은 교회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책임감이 박약하여지고 무력한 신자가 된다. 북 구라파 스칸디나비아 지방에는 루터교를 국교로 세운 곳이 많다. 국비로서 교회당이 건축 유지되며 교역자의 생활비도 국비로서 지불된다. 교회가 국가에서 경영하는 기관이 되니 교인들에게 자기들의 교회라는 애착심이 희박(稀薄)해지며 동시에 교역자 역시 교회의 발전과 양태의 영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목회자라기보다는 정부에 고용된 관리연한 태도를 취하기 쉽다. 스칸디나비아 지방의 교회당들은 대체로 규모가 크며 훌륭한 건물들이다.

그러나 교회들은 무력하며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은 극소수이다. 수천명이 모일 수 있는 거대한 교회당에서 수십명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광경은 그 지방을 잠시 지나가는 여행자들에게도 알려지는 사실이다. 이렇게 무력하여지는 원인은 교회 자체가 영력을 상실하고 외형적 조직체로서 종교 의식을 근근히 유지한다는 점으로도 생각하겠으나 신자들에게 교회를 위하여 봉사 헌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가가 교회를 경영하니 교인이 교회를 위하여 헌금이나 기도할 책임감을 갖지 못하며 신앙의 성장이 없다. 교회가 국가나 기타 단체에서 복음전파를 위한 각양의 원조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조는 어디까지나 무조건적이어야 하며 그러한 원조 까닭에 교회가 그 주권을 침해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교회가 성령의 감화로 복음을 신앙하는 신자의 단체라면 성경말씀에 의거하여 스스로가 자체를 유지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교회세력의 국가지배

교회의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는 일은 로마교회가 세력을 켜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로마교회의 교권이 국가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고대 로마제국을 중심으로 구라파에서 법황이 세력을 쥐었을 때부터이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도 로마교회로 어느 곳에서나 교세가 강하여지거나 로마교회 신자가 정권을 쥐게 되어 형편이 가능하지만 된다면 이교회의 국가지배 정책(Church over the state)을 시행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로마교회는 그 자체가 종교이면서도 또하나의 국가로서 자처한다. 바티칸을 영토로 하고 법황을 국왕으로 하는 로마교회는 현재 59개국에다 대사를 파송하고 45개국에서 대사를 받아 드림으로 하나의 국가로서 주권을 유지한다. 그런데 로마교의 영토가 이태리 로마시에 위치한 것은 지역인 바티칸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어느곳에서나 로마교회의 교권이 국정을 좌우하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하나의 주권적 국가로서 행세하겠으나 실제로 있어서 그나라의 최고 통치자는 그나라의 국왕이 아니라 로마교회의 법황이 되는 것이며 그나라의 영토는 데르마교 제국(假稱)의 일부로서 행세하는 격이 된다.

로마교회가 국가지배의 정책을 시행하는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일이다. 법황 그레고리 7세(1073—1083)는 말하기를 창조주께서 하늘에 두 큰 빛을 두어 만물을 비추게함과 같이 땅위에 만인을 다스리기 위하여 두 가지 큰 권리를 주셨으니 하나는 교황권이요 다른 하나는 국왕권이다. 그런데 교황권은 큰 빛이요 국왕은 적은 빛이기 때문에 교황의 권리는 국왕의 권리를 지배하도록 마련 되었고 또 법황의 지배를 받음으로서 국왕은 정치를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교서(敎書)는 많은 법황이 공포(公布)한 것인데 로마교회에서는 이러한 교서 즉 교회의 전통, 소위 성전(聖傳)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성경과 꼭 같이 받아드려 신앙과 생활의 법칙으로 삼는다. 교권의 국가지배란 로마교회의 공적 교리인데 현재 로마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이 정책을 시행치 못하는 곳이 있음은 로마교회에서 그 교리를 변경이나 포기한 까닭이 아니고 그들의 교세가 약하여 시행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뿐이다. 중세대에 있어서 로마교회가 국권을 유린한 사실은 비

일비제이다. 중세대의 서양사관 법황과 국왕들 사이에 일어난 정권 쟁탈사이다. 세상 권력의 지배자로서 역할을 한 법황중 인노센트 3세(Innocent III, 1198-1216)는 주목할만하다. 독일황제 헨리 4세가 죽은 뒤 국정이 혼란케 되었을 때 인노센트 3세는 독일 국정에 직접 개입하여 마침내 자기 뜻대로 프리데릭 2세(Frederick II)를 국왕으로 선정 즉위케 한후 국정을 자유로이 간섭하였다. 불란서 국왕 필립(Philip)이 자기 아내와 이혼했을 때 법황 인노센트 3세는 국가 전체에다 파문(破門)하는 벌을 내리고 압력을 가하여 결국 필립은 자기 처를 도로 취했다. 영국 국왕 요한(John)이 대주교 취임문제를 두고 법황 명령에 순종을 거부했을 때 법황은 영국전체에다 파문의 벌을 내리고 국왕 요한의 폐위를 선언하게 되니 국왕 요한은 마침내 항복하고 법황을 영국의 최고 지배자로 인정하였다.

루비쌍스, 불란서 혁명등은 영국의 경험주의나 대륙에서 발달된 이성주의(理性主義)로서 성숙(成熟)해진 인본주의 운동의 일면이었으나 종교적으로 볼 때 교권으로 생활의 제반영역을 억압하던 로마교회에 대한 반항이라 할수 있다. 더욱이 종교개혁으로 심한 상처를 입은 로마교회는 한때 약화된 것 같았으나 19세기 초부터 노골화된 신학사상의 혼돈과 분열, 세속주의 등으로 신교가 약화됨에 따라 다시 득세하여 형편만 허락하면 정치 경제 교육 기타 생활영역에서 교권독를 적용함으로써 교세확장을 도모한다. 현대 이태리에 복음주의 선교사의 입국이 금지된 사실이라든가 프랑코 정권이 서반야를 법황의 왕비(the queen of Pope)라 부르는 일 또는 콜롬비아에서 신교도가 당하는 박해는 로마교회가 그 지역의 정치를 좌우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현재 세계의 여론을 집중시키고 있는 월남의 고딘 디엠펙 정권은 로마교회교인이 정권을 잡은후 비교적 강력한 지배를 가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월남의 총인구는 1,500만 인데 약 8할이 불교 신도이며 로마교회 신도는 150만 정도이다. 로마교회 교인이 총인구의 1할 밖에 안되는데도 로마교회 교인이 정권을 통하여 강력한 지배를 잡게되니 총인구의 대다수를 점령한 타종교가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만일 현재 월남인구의 대다수가 로마교회 교인 이라면 거기에는 로마교회의 소리 이외의 다른 것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이 될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고딘 디엠펙씨는 로마교회 학교와 수도원에서 훈련을 받고 미국의 유력한 로마교회 지도자 추기경(樞機卿) 스펠먼(Francis Cardinal Spellman)의 지도를 받은바 있는 독실한 로마교회 신자이다. 그는

로마교회의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월남을 이상적인 국가로 만든다는 이념아래 로마교회 중심의 독재와 탄압으로 월남을 다스린다. 그의 형인 고딘 록씨는 로마교회 대주교로서 정치를 자유로이 간섭하여 자기 종교 확장에 이용한다. 말로서는 종교차별이 없다고 하나 사실에 있어서 고딘 대직은 거의 로마교회 교인이요 군부의 고급장교들도 거의 로마교회 교인이며 심지어 위관급 승진(尉官級)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로마교회로 개종(改宗) 혹은 입신하는 일이라 한다.

이와같이 로마교회가 국권을 좌우하는 곳에는 다른 종교 특히 신교의 자유가 유린된다. 동시에 로마교회의 지배를 받는 곳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못하며 국가자체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하여 로마교회의 정치적 간섭을 받아온 이태리나 불란서등은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의 발전이 박약하다. 제2차 대전 직후만 하여도 이태리나 불란서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할 자주적 투쟁력이 희미하였으며 미국의 원조가 아니었다면 공산세력에 삼키울뻔했던 것은 알리워진 사실이다(Lorraine Boettner, Roman Catholicism, P. 5) 현재에도 소위 자유진영 국가들중에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는 거의 로마교회 세력의 강한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다. 반면에 아직도 신교국으로 볼 수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화란, 서전, 정발 등은 여러 방면으로 보아서 선진국가라 할 수 있고 제이차대전 이후 현재에 이르도록 반공투쟁에 적잖은 공헌을 끼쳤다. 정치란 언론 출판 집회등의 자유가 보장된 곳에서 정당들의 진정한 경쟁이 있을 때 발전을 보게 되는 것이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

교회와 국가의 분리(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는 주로 개종주의 진영에서 주장하는 점이다 이것은 정치와 신앙의 자유를 도모하려는 주장인데 즉 교회가 교회로서 국가를 지배할수 없고 국가가 교회의 내정간섭을 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상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막12:17,)라하신 말씀이나 교회의 일은 교회에서 처리하라는(고전6:1:8,)사도바울의 목회원리와 부합한다. 구라파에서 로마교회와 국교의 박해를 벗어나 미국 신대륙으로 와서 자유의 나라를 건설한 청교도들은 이 정교(政·教)분리주의를 하나의 원리로 삼았던 것이다. 이 주장을 미국에 소개하고 미국 민주주의 건설에 크게 역할한 사람은 미국 민주주의의 창

“교회가 국가나 기타 단체에서 복음전파를 위한 각양의 원조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조를 어디까지나 무조건적이어야 하며 그러한 원조가답에 교회가 그 주권을 침해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승만 박사가 집권당시에 한국교회 몇몇 교파가 연합하여 그의 출마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전국에 공포한 일이 있다. 이것 역시 정치에 대한 교회의 정당한 태도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가 신앙자유를 유린하고 신자의 시민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때 교회는 증거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신자라고 불리우는 라저 윌리엄스(Rodger Williams, 1599-1683)란 영국목사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 건설된 미국 민주주의는 과거 백여년 동안에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다. 국정은 어느 특정한 교회나 종교단체의 압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민 정부가 즐길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적이고 교회는 국가의 간섭 없는 자유로운 복음운동을 하여온 것이다.

그러면 정·교(政·敎)분리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가? 국가와 교회 사이에 하등의 관련도 협력도 있을 수 없다는 말인가? 이 말은 신자가 국가에 참여하고 간섭하여야 할 시민의 기본권리를 포기하란 말도 아니며 예수님의 증인된 교회가 세상에서 증거하는 의무를 버리란 말도 아니다.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단체이다. 동시에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며 인간은 국가의 시민이다. 신자는 시민으로서 국가에 참여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신자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받음으로 매사를 바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니, 신자는 나라를 위하여 불신자보다 책임이 더 중한 것이다. 정치란 상해성이 없는 직업이며 기독교의 세력이 미약한 곳에서는 신자로서 정치인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치의 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니 이 일을 무신론자나 세속주의자들에게만 맡기고 방관할 수 없는 일이다.

신자가 개인으로 국가에 참여하여야 함은 기술한 바이나 신자가 단체로서 국가 사회를 위하여 힘을 합함도 필요하다. 독일이나, 화란 등지에는 기독교 정당들이 있다. 이 정당들의 역사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정당이 구라파 정계에서 비교적 건전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도 무시 못할 것이다. 신자들이 단합하여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당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교회 자체가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교회는 교회로서 국사를 살피고 위하여 기도할 의무가 있다. 국가에 선거나 다른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의 성격을 설명하고 국가의 복리를 위하여 기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물론 복음을 전하여야 할 강단에서 정치강좌를 위주하란 말도 아니며 선거에 있어서 누구를 위하여 투표하라 하지말라는 지령을 하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선거의 중대성을 인식시키고 투표를 성의있게 하라는 것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로마교회는 정사(政事)가 자기 교회의 이권에 관련이 있을 때 교회의 지령으로 교인들은 움직여 국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1960년, 미국 영토인 포토리코(Puerto Rico, 인구의 대다수가 로마교회 교인)에서 민주당 지사 마린(Luis Munoz Marin)씨가 재출마(再出馬)를 했을 때 그 지역의 로마교회를 지배하던 주교 3인의 명의로 마린씨를 위하여 투표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일이니 로마교회 교인은 누구나 투표하지 말라는 공개편지를 각 교회에 보냈다. [이 편지가 각 성당에서 미사시에 낭독이 되고신문에 게재되며 전국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 (The Philadelphia Inquirer, October 31, 1960) 로마교회의 주교들이 이러한 지령을 하게 된것은 마린 지사의 정권이 로마교회에서 주장하던 산아제한 반대, 로마교회 학교에 대한 국가원조, 공공립학교에서의 로마교회 교육등의 정책을 그들의 주장대로 시행해주시지 않았다는데 있다고 한다. 미국 헌법에 의하면 산아제한은 개인의 자유에 속한 문제이고 국고금은 어떠한 종교단체나 종교에 속한 기관에도 줄 수 없는 것이며 공립학교는 어떠한 한 종교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로마교회 교인이 출마하자 평소 대통령선거에 관심조차 갖지 않던 수도원의 수녀들이(중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로마교회 교인의 출마한 일이 별로 없었음)투표를 위하여 총 출동하였다. 로마교회 각 성당에서는 누구를 위하여 투표하라는 지령이 선포되고 심지어 로마교회 국민학교 아동들 까지 동원 되어 선거운동의 행렬을 한 것이다.

이것은 한 종교가 국정을 좌우하려는 일이니 민주주의 국가에 있을수 없는 일이다. 동시에 누구를 투표하든 안하든 개인 시민이 결정하여야 할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다.

이승만 박사 집권당시에 한국교회 몇몇 교파가 연합하여 그의 출마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전국에 공포한 일이 있다. 이것 역시 정치에 대한 교회의 정당한 태도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가 신앙자유를 유린하고 신자의 시민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때 교회는 증거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과거에 주요한 국사(선거, 화폐개혁 등)를 주일날 시행한 일이라든가 국기배례를 강요한 일등에 대하여 교회들이 소리를 합하여 정부에 진정한 사실은 교회에서 할 수있는 일이라고 본다. 이것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는 행동이라기 보다는 신앙의 책임을 당치 않으려는 것이다.

—개혁신의 제 1집(1963. 10. 8)에서—

죄에 대한 심판

이 성 근 목사

(출판위원회 지도)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역적이요 반역행위입니다.

유리가 더러워졌으면 닦으면 그만이고 얼굴에 먹이 묻었으면 씻으면 그만인 것처럼 어제 지은 죄는 오늘 벌써 없어지고, 어렸을 때에 지은 죄는 늙어지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며 죄에 대하여 별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책상에 못질한 것과 같아서 그 못을 뺄지라도 박혔던 못자리는 남아 있는 것과 같이 한번 범한 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면 꼭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벌이 없다면 도적질을 한 사람이나 살인한 사람이라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는 악을 행하여도 법망에 걸리지 않는 자가 있으나 하나님의 심판의 법에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같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심판의 보응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당장에 임하는데 마치 불을 쥐면 즉시 손을 떼는 것과같이 악한 일을 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벌을 받습니다. 또는 당장 벌을 받지는 않아도 언젠가 반드시 벌을 받고야 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선악에 대한 상벌이 완전하게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때때로 악한 사람이 영광을 누리고 선한 사람이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상벌 심판율의 심하기 쉽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 뿐이면 하나님의 선악에 대한 심판은 불공평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써 선과 악에 대한 완전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 아닙니다. 죽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갈라지는 것뿐입니다. 육신은 영혼이 거하는 집이요, 영혼은 그 집의 주인격입니다. 집이 낡으면 무너지지만 그 집이 무너진다고 주인까지 함께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집이 무너지면 주인은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 그만입니다. 사람의 육신도 낡으면 몸이 쇠하여져서 여기 저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낡은 집의 기둥이 썩으며 벽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살이 빠지고 뼈는 뻣뻣하여지고 모든 기관이 약해집니다. 이러다가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몸을 떠나 곧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공평하고 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세상에 나서 죽을 때까지의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최종적이요, 완전한 심

판을 하십니다.

사람은 좀 오래 되어도 있고, 일이 좀 많아도 있고, 적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은 일이나, 아무리 많은 일이나,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도 한번 있었던 일이면 결코 잊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범한 모든 죄는 심지어 한마디의 거짓말이나 더러운 생각이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마25:31, 눅15:7) 첫째로 행한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롬14:10, 12 제 20:11-13)

둘째로, 그 말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마12:36)

셋째로, 그 생각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와 심판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사대로 보응하나니』 (렐17:9-10)

마치 기록영화를 보는 것과같이 사람의 일평생이 크든지 작든지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었으니 나중 심판날에는 그것들이 다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서 아무라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재판에는 이따금 죄인들이 거짓말을 하여 재판장을 속이고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으나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앞에서는 털끝만큼도 속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사는 동안에 범한 모든 죄가 낱알이 자기의 눈앞에 드러나서 오직 무서워 떨며 후회하고 이를 갈며 애통할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9:27)

사이 사실은 누구든지 피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은 후에 이와같이 공정하고 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일에만 취하여 꿈 속에서 세월을 보내는 것은 마치 강을 아래에 나이가가 라와 같은 무서운 폭포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예사로 물흐르는 대로 노를 저으며 먹고 마시며 노래하며 즐락하며 떠돌고 있는 것과 꼭 같습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람은 한번 이 심판대 앞에 서고야 말 것입니다. 왕도 서고, 백성도 서고, 부자도 서고, 빈자도 서고, 남자도 서고, 여자도 서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을 얻으리라』 (엡3:12)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심판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1200자 찬송

8 월

고 제 원

8월이 되면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족의 해방 일인 8·15 광복절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더우기 8·15해방은 한국교회와 깊은 의미를 갖고 있기에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서 잊혀질 수 없는 날이기도 하다. 매년 접하는 8·15이었으나 금년 8·15는 생각할 일들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일제 압박과 학정, 더 나아가 한국교회에 대한 핍박과 그로 인한 순교의 제물들. 그후에 축복으로 주신 광복의 기쁨 이들은 여태껏 단편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다. 그러나 그다음의 생각들이 없었기에 오늘에 이르르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기쁨이 오면 그 배후에는 그만큼 댓가를 치를만한 슬픔과 어려움의 사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방의 기쁨에만 도취되어 기쁨을 기쁨으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기쁨을 다시 슬픔으로 바꾸려는 현실이 된 듯하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8월에 해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길으신 뜻이 있기 때문이다. 8월은 삼라만상이 성장하는 시기, 그것도 가장 왕성한 시기인 것이다. 충분한 밑거름 위에 싹이 터 오뉴월의 어린시절을 거쳐 열매를 위한 충분한 성장의 시절이 8월인 것이다. 이런 8월에 이나라에 해방을 주셨다.

순교자들의 밑거름 위에 왕성한 성장을 하여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나라에 8월을 주셨고 또한 해방도 주신 것이다. 민족을 이끌 지도자는 기독교인들이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민족복음화야말로 8월을 의미있게 보내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축복으로 주신 해방을 기쁨으로만 생각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장할 작로를 해야 할 시점인 듯하다. 나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가정, 교회, 더 나아가 민족적 차원과 세계적 차원에서 신앙성장을 해야 할 달인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의 해방을 주신 것처럼 순교의 피로 인하여 이 민족에게도 해방을 주셨다. 해방후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으로 나라가 양분되며 나라를 잃었던 것을 생각하며 이 나라를 위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해 보자. 믿지 않는자와 위정자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올바른 신앙 성장의 각오로 8월을 생각하자. 먼저 자아의식을 깨닫고 민족과 조국을 위한 헌신의 각오와 저 이북 동포와 세계를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요청되고 있다.

이 모든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놓으셨다 다만 우리들의 기도와 행동으로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에 8월을 생각해 본다.

■ 찬송가 감상 ⑦ ■

영혼을 전지는 열심을(새451장)

김 중 석 전도사

(제이성가대 지휘)

「영혼을 전지는 열심을
나에게도 주소서
만민이 주님의 사랑을
늘 찬송케 합소서」

이 찬송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참신한 맛을 풍겨줍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먼저 독자 여러분은 실제로 새찬송가 451장을 펴놓고 한번 차분히, 의미를 꼭꼭 새겨 가면서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이 찬송이 주는 열정과, 내용의 선명함과 간결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래서 친밀감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도 역시 신자의 순수한 신앙이 선명히 그려져 있는데

「말로는 못다할 위험이
내 가는 길 막아도
날마다 주 은혜 감사해
늘 즐겨 나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주 은혜 감사해 늘 즐겨 나가리라"를 읽을 때 가슴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 "나는 얼마나 이 시의 고백과 잘지 못하고, 지금까지 불만과 불안 속에 살아 왔던가?" 반문 자책하게 될 것입니다. "늘 즐겨 나아가겠다고 했는데 내 삶이 정녕 늘 즐거웠던가?" 이 찬송의 간단한 한 줄이 큰 설교와도 같이 내 맘속에 감동과 각성을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열심 내 것이 아님을
늘 깨닫게 합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 신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결론, 이 경건을 꼭 소유했으면! 이와같은 고백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신앙은 청신호-전진하는 신앙-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길을 잃고 늘 방황하는 자
주 앞에 인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구속의 역사
말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도.....순간 순간 증거자의 삶을 산다는 것 얼마나 승리의 삶일까? 신앙생활을 세상 눈치 따 가면서 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아는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항상, 이 시간에도 저 시간에도 구속의 역사선(線)상에 서야 하겠습니다.

음악은 8분의 6 박자로 꽤 있는데 필자의 생각으로 는 가사 내용보다 곡조가 좀 떨어지는 듯 합니다. 끝 부분에. 놀임표를 붙인 것도 우리 한국인에게 는 어색하기만 하구요. 가사 내용은 진주같이 알찬 내용인데 박하의 곡조는 너무 호소적 거리는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곡이 붙여졌으면 싶습니다. 그러나 그 가사의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함으로 인하여 필자는 감히 우리모두 이 곡을 아껴 불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 도서 정보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에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7월중 구입한 도서

1. 일반문학

- 1) 한국문학전집 : 민중서관, 이광수의 흙의 23권, 1978년

2. 양서

1) 정서

- ① The Children's Bible in Colour/Western Publishing Company, 1977.
- ② Great Adventures of the Bible/Spencer, Chris; Lion Publishing, 1976
- ④ The Messge of the New Testament/Bruce, F. F.; The Paternoster Press, 1972.
- ⑤ Understanding the New Testament Matthew, Mark, Luke, Scripture Union. 1977.
- ⑥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moule, H.C.G; Pickering and Inglis. 1976.
- ⑦ Philippiian Studies/Moule, H.C.G; Pickering and Inglis. 1976.
- ⑧ Life in the living word/Coleman, Robert E; Asbury Theological Seminary, 1974.
- ⑨ John the Baptist/Meyer, F.B; Lakeland, 1975.

2) 조직신학

- ① Angels/Graham, Billy; Hodder and Stoughton, 1975.

3) 전도학

- ① Cinderella with Amnesia/Guffiths, Michael; Inter-Varsity Press. 1975.
- ② This is That/Brcue, F.F. The Paternoster Press. 1968.

4) 기독교 윤리

- ① The Liberation of Planet Earth/Lindsey, Hal; Lakeland, 1975.
- ② The Knowledge of the Holy/ozet, A.W; Send the Light Trust, 1961.

5) 사전류

- ① New Compton's Encyclopedia 26v, The Young Children's Encyclopedia 16V/Britannica, 1977.
- ② Britannica Atlas/1977.

기증도서

1) 주석류

- ① 사무·열서, 열왕기, 역대기/박윤선著, 영음사, 1978. <영음사증>

2) 양경용권사 도서기증

본 교회 양경용 권사님께서는 성경신학(박윤선著, 영음사간)의 17권의 도서로 본교회 도서실에 기증 하셨습니다.

*지난 7월12일 본 도서실에서는 일천에 들어온 복음선박 "로고스"를 방문, 많은 양서를 구입하였다.

<독서 캠페인>

□ 한달에 책 한권씩 읽으시다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이 없는 우...
...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 슬금슬금 고백입니...
...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
...라서 적어도 한달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
...을 키워가자는 의도에서, 금년에도 우리는 이와...
...같이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충현」.....

◇ 추천하고 싶은 책 ◇

매릴 F. 엉거 저, 김진홍 역



세종문화사, 1975

이 책의 저자 엉거는 복음주의 구약학자로 존경을 받는 분이다. 또 그는 고고학에도 상당히 깊은 지식을 가진 고고학자로 알려져 있을 정도이다. 먼저 이 책의 전체적인 특징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보수적이며 복음주의적인 입장의 책이다. 저자는 구약의 개요(Outline)를 소개하면서 특히 구약연구에 문제되어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취급하되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간결하게 정리하여 놓았으며 또 반대입장의 비판적인 학설도 소개하면서 그에 대한 명료한 답변을 내림으로써 보수주의적 입장을 밝혔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전부 4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는 일반적 개론으로 구약의 영감설, 정경(Canon), 구약의 가경 그리고 여러 역본들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취급해 놓았다. 제2부에는 오경에 대한 부분으로서 오경의 중요성과 그 범위, 오경의 저작권 문제 등에 관한 것을 다루어 놓았다. 제3부는 예언서를 취급하였는데 전기예언서와 후기예언서로 나누어 각 예언서마다 그 책의 명칭·목적·대요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 등을 설명하되 간결하고 평이하게 서술하였으며 그리고 매장 끝부분에는 친절하게 참고문헌을 소개함으로써 더 자세히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리고 제4부는 성문서(writings)로서 시서, 오축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역사서를 그 순서에 놓았다. 필자가 이 책이 처음 번역되어 나왔을 때 읽어보고 많은 도움을 얻은 바 있다.

이 책은 구약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구약은 신약의 뿌리와 같은 것이다.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책은 약간 신학적이요 학구적인 면이 있으나 그러나 어려운 책은 아니다. 누구나 한번씩 읽어서 큰 도움을 얻었으며 한다.

이준교 전도사

(청년부 지도)

시편에서 주는

주간지 만나

시 47:1-9

하나님을 찬송하자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손바닥을 치고……의칠지어다」는 있는 힘을 다하여 열심으로 회일에 넘쳐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과 영광을 돌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이십니다. 세상에 높은 자가 많지만 지구덩어리를 다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국부적으로 잠시 왕노릇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영원까지 다스리는 분으로 누구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2. 엄위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잘못된 자를 심판하시려고 감찰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이 득세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과나무보다 가시나무가 잘 크고 익어도 주인은 도끼를 드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3. 온 땅에 임금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닷물도 함부로 육지에 못 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도는 사람이 그러도 지도의 변경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땅위의 역사의 열쇠를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4. 특별히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하여도 택함을 입은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종내에는 애굽이 항복을 하고 가나안 7족속이 항복을 하였고 여호수아 장군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입니다. 이렇게 택함을 받은 백성을 사랑하여 원수를 이기게 하여 기업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세상 끝날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편이 되면 좋고 그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큰일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진리로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바로 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맙시다.

시 48:6

죄의 결과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사람이 욕심을 잉태하여 회개하지 않고 기간을 다책

우면 마침내 죄를 낳고 그 죄를 거짓말로 젖먹여 키우면 멸망을 낳는데 그 멸망을 낳아 놓은 고통은 곧 여인의 해산 고통처럼 인생의 고통중에 최고의 고통입니다.

아담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책임에 충실했던들 얼마나 좋았으련만 쓸데 없는 욕심을 품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만 평생을 고생을 하였고 천주만대에 화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양심대로 살아 생명을 남읍시다.

시 49:3

지혜를 말하자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소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는 만민에게 공통적으로 유익을 줍니다. 지혜는 길을 잃은 나그네에게 힘이 되는 양식이요 인생의 갈 길에 실수를 당하지 않게 하는 빛이요, 원수의 꾀임을 면하게 하는 진리이며 원수의 위협을 이기게 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전하는 자는 내 앞에 어떠한 사람이 있어도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거나 권세가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겸손히 듣는 자이거나 교만하여 듣지 않고 비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조실하여 또 담대히 전할 뱃장이 필요합니다.

에베미야 선지도 나라의 국왕과 방백이 죽이려 하던 서 예언하지 말라고 위협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시키는 말을 아니할 수 없고 내 몸을 너희가 좋을 대로 처리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알라」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은

1. 담대히 말씀만 누구 앞에서나 증거해야 하고
2. 자기가 깊이 연구하여 먼저 알아야 하고
3. 누구나 알아 들도록 쉽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전해야 합니다.

또 진리의 지혜를 듣는 자도 역시 이 말씀의 귀중성을 알고 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는 잘난 줄 알고 교만쟁이가 되지 맙시다.

사람 앞에는 빈부귀천의 차이가 혹 있을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는 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다 벌레요 약하고 다 우둔하여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 어찌 인생이 무엇인들 내어놓고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하겠습니까.

이 원고는 김창인 목사의 시편강해를 출판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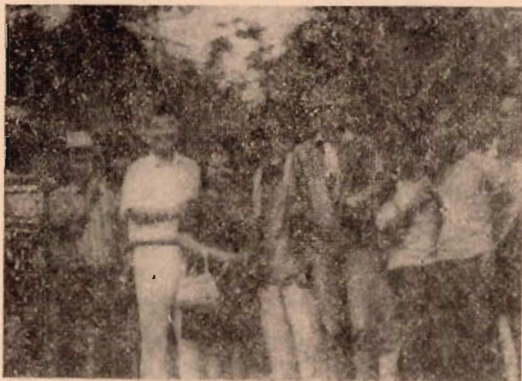
<편집자>

애굽과 인도네시아

안정과 성장 속에서 활동

애굽—성경보급 계획중

1. 애굽 성서공회 중동 책임자 하비브 하킴(Habib Hakim)목사를 만나서 애굽의 성경 보급과 한국에 보낸 유학생에 관해 의논함.
2. 5월 30일 신학대학 학장 화힘 아지즈(Fahim Aziz)박사 부처를 초대하여 식사를 나눔후 한국에 관한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애굽의 장기 정착에 따른 거주 허가 문제와 2학기부터 있을 신학교 강의에 대하여 의논함.
3. 6월 1일은 애굽 목사 타우휘크(Rev. Tawfik Doss)가죽을 초대해서 한국식사를 대접한후 한국에 관하여 소개하고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음.
4. 토요일 성경공부반을 6월 3일부터 시작했음. 이 성경공부반에서는 구약성경 배경을 역사적으로 배운후 유적지를 견학할 뿐 아니라 출애굽기를 주된 구약성경을 좀더 깊이 이해해보자는데 목적을 두고 애굽 주재 교민 부인회를 주최로 신·불신자를 망라해서 공부하기로 했음.
5. 아라비아어 공부에 전념하고 있음. 아직은 영어로 설교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1년후에는 아라비아어로 설교를 하여야 하는데 특별히 기도의 부탁을 드림.
6.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림. 지난 4월에는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곳의 기후는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온 하늘이 부영게 되고 먼지 때문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이집트 사막 바람의 특징이고 또 나일강 물에는 석회질이 많이 있어 여기서 오는 부작용, 몸의 피로와 건강의 장애가 많은 편임.



인도네시아—성령이 역사하는 집회들

1. 한인교회 성례식
3월 19일에 금년도 첫번째 성례식 예배를 드렸는데 학습문답자 3명, 수세자 6명, 유세자 3명이었음.
2. 제 2차 성경 주론
3월 20일 본선교부에서 정글선교용 인도네시아어

신약성경을 인도네시아 성서공회에 5천부 주문하였음
1975년도에는 3천부를 주문한 적이 있음.

3. 부활절 연합예배.

한·인 합동 부활절 연합예배를 3월 26일 본 선교관에서 드렸음. 시안무리 대령의 성경봉독과 오순절 교회의 존 배라 목사의 설교, 시부 자바 교단의 마를루시 목사의 기도로 예배가 진행되었으며 한인교회 성가대와 크리스찬리티 밴드가 연주를 하였으며 군부의 장성들이 참석하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축하함.

4. 장학금 송금

3월 29일 1978학년도 1학기분 장학금 388\$을 북부 스마트라 성경학교에 송금하였음.

5. 중부 자바에 전도사 파송

1978년도 2월 중부 자바 순회의 종합적인 결론으로 중부 자바 8개 촌락에 전도사를 파송코자 물색중에 있는데 후보가 확정되는데로 4월 17일 입마누엘 교회당에서 본 선교부 주최로 파송식을 갖게 될 것임.

6. 성령께서 역사하신 부흥집회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 저녁까지 자카르타 교파에 소재한 중국인 오순절 교회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42명이 결신하였고 압환자를 비롯한 12명이 집회중 완전 치유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음. 이번 사역은 일시 귀국중 쫓집회에 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더욱 더 힘을 얻어 열심히 증거하므로 이뤄진 성령님의 역사이었음.

7.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오지 개척상황

지난 4월 16일에 파송한 8세대의 오지 개척자로부터 5월말까지 접수된 상황은 다음과 같음. 결핵환자 1명을 비롯하여 7가정이 결신하였으며 35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특히 "롬봉마스" 지역에서는 촌장의 열심으로 전 촌락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며 주와나 지역에서는 호별방문 전도를 실시하고 있음.

지역별 사역을 보면,

- (1) 팜데안 지역(수요요 전도사)
2세대 11명이 회개하고 결신.
- (2) 그라박 지역(뿌라보워 전도사)
3가정이 결신하였으며 새 개척지를 또 탐색중임.
- (3) 위노기리 지역(마르판도 전도사)
결핵환자 1명 결신.
- (4) 수꼬레조 지역(양민 전도사)
4월 27일 결신자 35명에게 세례 베풀.
- (5) 웅아탄 지역(사카리아 전도사)
새 교인이 늘고 다수의 세례 청원자가 있음
- (6) 롬봉마스 지역(요육 전도사)
촌장이 새로운 열심으로 온 촌락이 함께 예배 드림. 밤 집회를 위하여 "게스 램프"를 청원하고 있음.
- (7) 주와나 지역(수와디 전도사)
호별 방문 전도를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회개함.
- (8) 위노사리 지역(라또노 전도사)
2가정이 회개하고 날마다 부흥중에 있음.

평신도 선교

차 신 득 집사

<제일성가대원>

모순 덩어리

김 광 배

<대학부 1년>

근래에 와서보면 수출입국이니 자립경제확립이니 등의 슬로건아래 많은 기업들이 날을 가리지않고 일을 하게됨에 따라 성수주일이 위협을 받고있으며, 눈앞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양심은 어디 갔는지 탈세나 밀수를 서슴치 않으며 심지어는 유해식품이나 불량상품을 대량으로 만들어 판다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될 때마다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직장에 몸을 담아야 할 사람에게는 직장의 선택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될 상황이 되었다.

일부 지각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여 복침을 돌구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으며 매스컴은 매스컴대로 세마음갖기운동이니 무슨 운동이니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으나 문제는 개선되기보다는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이런 문제와 관련시켜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의문을 느끼는 것이 있다. 천천교회만 해도 매주일 7,000여명의 교인들이 모였다가 각계 각층으로 한주일동안 흩어져 나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보면 세칭 500만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곤 한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에서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시니 그리스도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500만명의 교인들이 3,500만명의 우리 민족속으로 스며들어가 있다면 실령 일부 썩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곧 시정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깨끗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지며 여호와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리는 나라가 분명히 될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변혁되려면 인간이 먼저 개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을 듣는 우리는 누구나 긍정할 것이며 인간개조에는 복음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도 잘 알고 복음전파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케 되었다. 문제란 각계각층에 들어가 있는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나타내 가면서 지내고 있는냐 하는 점이다. 즉 말은 일에 충성할 뿐만아니라 국내든 해외든 자기가 있는 곳에서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발견하고 얼마나 이에 순종하느냐 하는 점이다.

직장을 갖고 있는 평신도라면 자기 직장선교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므로 자신의 신앙이 놀라운 체험과 함께 성장하게 되고 가장 효과적인 전도를 실천할 수 있게되면 직장까지도 복을 받게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평신도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는 저절로 이루어져 나갈 것이며 그외의 모든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우리는 모순에 대한 고사를 너무나 잘 알고있다. 옛날 초국(楚國)에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자신이 가진 창과 방패를 선전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떠벌였던 웃지못할 거짓말과 그것을 지켜보던 행인이 그 상인에게 던졌던 질문. 그 행인이 상인에게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상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표정 또한 얼마나 난처함을 표현했음지는 우리들이 가히 상상할 수 있다.

나는 항상 내 속에서 이 상인과 행인이 대화하는 것을 느낀다. 즉 나의 인간적인 본성이 모순된 말과 행동을 하면, 내 마음의 성령이 난처한 질문을 던지곤 한다. 그때마다 나는 큰 고통을 느낀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모순인 줄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정신적 한계를 벗어난 사람으로 모순을 없애 주셨다. 이렇듯 우리는 항상 생활속에서 모순을 창조하고, 주님은 그것을 없애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모순속에서,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순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한 우리 자신들의 모순을 발견할 때 따르는 괴로움과 그 모순된 행동을 더하지 못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일부러 그것을 감추고 그것에 타당한 이유를 붙이려는 비겁한 노력을 할 때도 있다.

누구나 한 과정에서 다른 과정으로 갈 때 과도기를 거친다. 이 과도기는 현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 몇 달동안의 대학생활, 즉 나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대학생이 되기위한 과도기적인 기간을 정신적인 방황과 고민 속에서 지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과 교회생활 사이에서 급변하는 이중인격적인 나 자신을 발견했고 또 이제껏 보고 듣고 생각했던 신앙이 흔들리고 나의 지성에 의해 차차 새로운 판단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판단이 결코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 하나의 모순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라나는 지성, 생활환경 망아(忘我), 자위속에서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내고 마치 그러한 것이 대학생들의 특권인 듯 생각하는 그릇된 관념이 무의식 중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다.

신앙은 순수성을 내포해야 한다. 이 순수성이라는 말은 고귀성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지성과 경험 판단단만을 가지고 함부로 이렇듯 저렇듯 떠들면서 만들어 낸 만한 성질이 못된다 라는 것이다.

우리들이 다만 기독교적인 사실로만 알기 쉬운 주님의 보혈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두가지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는 우리의 모순을 없애 주시려는 사랑의 소리이고 또하나는 자꾸만 모순을 감추려고 하는 우리들 보고 내시는 탄식의 소리이다.

구역 소식

축하합니다(7월중 결혼)

- 강신중군과 전영희양/경순영 권찰장녀 7월 1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위로 드립니다(7월중 별세)

- 이호림군(개봉구역), 7월 9일
- 송인택씨/민원옥권사 시부 7월 29일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1.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새성전 건축 준비에 난관과 문제였던 성전부지가 다 풀리어 머지 않아 설계도의 완성과 함께 가급적이면 금년에 정지작업에 들어가는 일까지 하게 될 예정입니다. 매일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히 금년의 과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2. 해외복음선교회와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세계 복음화는 우리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6개 지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지역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파송되어 활동하시는 일꾼분의 선교사님, 평신도선교사님들을 위해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세요.

3. 북한선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 북녘 땅 이북 동포들에게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금년들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고 하루에 두번씩 기도로 후원합시다.

알립니다

7,8월 두달동안 쉬었던 구역예배는 9월부터 다시 합니다. 구역교사님들은 준비공부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노트 ㉑

임종과 장례를 돕는 길(2)

백성령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장)

요즈음에는 녹음기를 이용해서 제측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있는데 매우 좋은 일이라고 본다.

4. 마지막 부탁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마지막 부탁의 기도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목사가 이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식구들은 환자의 의식이 분명할 때 신앙고백을 들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우선 목사를 청하도록 해야 한다. 목사는 온 식구들을 주변에 불러 모으고 환자에게 구속의 진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준다. 그리고 난후 그대로 믿느냐고 묻는다. 이 일이 끝나면 찬송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말씀을 봉독하고 간단히 설교후 기도한다. 흔히 환자의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한다. 이때 조심할 것은 결정적으로 죽으리라는 일념에 사로잡혀 기적적으로 회생하는 경우를 생각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므로 비록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라도 생사는 하나님 손에 달렸기에 주님의 뜻이면 살려 주시기 바란다는 말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죽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유언을 할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은 도와주어야 한다.

유언은 유언 하는 사람의 자유의사이지만 "예수님 잘 믿으라"는 한마디만은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죽은 사람의 유언에 너무 치중하지 말 것은 그 유언이 때로는 비신앙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비신앙적인 유언을 했을때 유가족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지 지혜롭게 설득할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때는 눅 16:에 나오는 부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고 비록 유언은 그렇게 했으나 세상을 떠난 후 오히려 후회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이해를 시키고 성경말씀을 좇아 행하는 것이 돌아가신분의 뜻을 따르는 일이 될 것이며 또 유가족들이 복받는 길이 될 것이라고 해야 한다.

6. 부고와 행정상 법적 절차를 밟는 일에 협력할 것이다.

상을 당한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미처 알고 있던 일들도 있어버리기가 일쑤다.

우선 의사의 사망확인진단을 받아야 하고 다음 장의사에 의뢰하여 유해를 임시 안치하도록 한다. 때로는 의사의 지시 없이 유해를 다루었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으니 이 순서를 잊어서는 안된다.

이 일의 진행과 동시에 속히 부고할 곳부터 차례로 메모하여 소식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구 역 공 과

<9월본①>

창세기 공부

제10과

약속의 아들 이삭

본문 말씀 : 창세기 21장

읽을 말씀 : 창세기 21:1-5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자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룰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창21:1-5)

1. 100세에 얻은 아들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창17:14)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주시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산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바울 선생님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롬9:7,8)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관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1:12,13)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배의 죽은 것 같음 때에도(경수, 경수가 끊임)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또한 축복 받은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는 길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마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하입니다(요3:16, 롬4:24, 25). 결코 사람의 선행이나 의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된자는 결코 자기를 자랑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창17:9-11)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약속에 의해 얻어진 아들 이삭에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성별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뜻으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나 마음에 할례를 받고 성별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녀입니다. 몸도 마음도 구별되었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구별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자기를 깨끗케 하며 참되며 진심하며 주님께 충성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성도의 마음 속에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받쳐졌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유대인은 몸에 가진 할례만을 자랑했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것은 게을리하였습니다. 바울 이것은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고 말씀하시며 참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롬2:25-29)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요 참으로 그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워진 자가 곧 참된 성도입니다.

3.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

이스마엘은 육정으로 하갈의 몸에서 난 아들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얻은 약속이 있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육의 아들이 약속의 아들을 핍박하였습니다(갈4:29).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아들 불 신자들이 성령의 아들 신자들을 핍박합니다.

이것은 시기와 교만과 불신앙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세상의 아들들은 믿는 자의 성별된 생활을 시기하여 조소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진 자기의 힘을 가지고 성도들의 은유한 생활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받을 줄도 모르고 의인을 모략하고 증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스마엘을 내어쫓으라 함같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악한 자들을 내어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끝까지 인내로써 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는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의지한 자가 승리했습니다.

토 의

1. 구원의 근거를 말해 봅시다.
2. 할례와 세례와 성별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구역공과

<6월분②>

창세기 공부

제10과

제물이 된 이삭

본문 말씀 : 창세기 22장

읽을 말씀 : 창세기 22 : 7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이 내게 여기 있느니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창 22 : 7)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가는 도중입니다. 아브라함의 착잡한 심정이 가히 짐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제사를 드리려 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을 바라보니까 사환에게 지우고 가던 번제 나무를 취하여 아들 이삭에게 다시 지우고 불과 칼을 아브라함이 손에 들고, 단 두 사람이 모리아산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1.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생을 바치는 경우에는 언제나 아브라함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때 이삭은 다른 때 같으면 있어야 할 양이 없는 것을 알고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때 이삭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수수께끼 같은 문답을 교환하며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화목을 버려 놓은 후에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두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삭이 비로소 아버지의 의심스럽던 대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번제물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단 한 가지 제물이 없습니다. 나의 회생으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생각을 못합니다.

자신이 제물임을 알아야 할 것인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단에 다시 온전히 드러야 할 제물임을 재인식하십시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차리고 장작을 쌓아놓고 어린 양의 자를 메놓고 불로 사루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무도 불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 양을 사르기 위해서 있는 물건입니다. 중요한 제물은 어린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도 때때로 불도 준비되었고 나무도 준비되었다고 했지만 번제할 어린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직도 갖추었고 인제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일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계획과 인제는 있거니와, 그러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할 사람이 없습니다. 번제할 어린양인 회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어도 하나님께 드릴 회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교국가의 교인들이 피선교지를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였어도 그것을 위한 회생인 선교헌금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인류는 소망 없이 죽을 뿐 하였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계획도 아닙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회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삭은 나무도 불도 있었고 번제할 어린양으로 이삭이라는 자기가 있었음을 알았을 때에 최고로 귀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꿈꾸기를 빼지 말자

②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입을 다물지 말자

③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얼굴만 보 말자

④ 제일 귀한 것을 감추지 말자

하나님은 언제나 신자에게서 최고의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것을 대신 주시게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찾으시고 요구하십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① 바나바는 자기의 발을 내놓았고

② 바울은 자기의 평생을 내놓았고

③ 스테판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고

④ 최담은 여인은 값진 옥합 향수를 내놓고 눈물과 머리털을 바쳤고

⑤ 가난한 과부는 전 재산인 두 렵돈을 바쳤고

⑥ 수베헌 여인은 마지막 남은 한 그릇 밀가루를 바쳤습니다.

이들은 또한 그 대신 엄청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2. 이삭은 속죄주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제물이 된 이삭은 신령한 면에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토 의

1. 누가 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2. 제물이 된 이삭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농어촌 파송전도—총9대의 52명

8월 14일부터 5일간

78년도 농어촌파송전도가 오는 8월14일부터 4박 5일간 실시된다. 총9대의 52명이 참여하여 실시하게 될 금번 전도대는 에스겔서 3장17절의 주제성구에 입각 「민족의 파수군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자」는 주제하에 충청남도북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도와 경남지방으로 나가게 된다.

1972년 「농어촌봉사대」를 「농어촌전도대」로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우리교회는 나아가 보다 근원

적인 해결책으로 농어촌교회 지도자, 교역자의 훈련을 절감하고 「농어촌교회지도자 초청훈련」과 「농어촌교회 교역자초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파송전도대는 6월에 실시하는 농어촌교역자초청훈련시 훈련청원서와 전도대파송청원서를 받아 훈련받은 교역자가 시무하는 교회중에서 선정 그 지역을 정하는 농어촌교회와 상호 유기적이고 합동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결정된 지역들은 7월에 열리는 「농어촌 평신도 지도자 초청훈련」시 해당교회 평신도지도자들과 협의하여 각대별 전략및전 도편대를 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한 후 8월에 파송하고 있다.

지난 7월 28—29일 이내 파송전도요원에게 전도의 사명과 자세(김종택목사), 이교도에 대한 전도(이승근

전도사), 개인전도법(홍정식 전도사), 농어촌전도안내(경기성 목사), 및 기도회(이양우 전도사)로 짜여진 전도 훈련을 실시하고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있다.

이번 전도대는 임지의 전주민에게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결신시키고, 해당교회 교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 주며 전도시범을 보이는 방향으로 운영방침을 세우고 새벽기도회, 대원조례, 전도 활동, 저녁부흥회 등으로 하루생활을 해나갈 예정이다. 강사(지도교역자), 대장, 대원 3—4명으로 구성된 본 전도대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78년도 농어촌 전도대 편성표

대	파송교회	파 송 지 역	교역자	대 장	대 원
1	화정교회	경남·의령·화정·상정	정 기 성	김 양 태	최혜석·서은숙·최명옥·김승연
2	태평중앙	충남·대전·충주·태평동	이 승 근	한 준 기	박양덕·전은실·김순화
3	매현교회	충북·단양·매포·평동리	김 경 신	김 경 생	정숙희·이인실·임옥만
4	갈렐교회	충남·홍성·결성·성곡	김 중 석	유 원 열	양병진·송양원·박상옥·이성옥
5	오랑교회	충남·부여·양회·오랑	김 수 성	신 영 권	김순애·박두이·현정남·김순옥
6	향정교회	충북·청원·강서·향정	이 양 우	한 정 배	이신복·김영숙·한월남·유재춘
7	웅천중앙	충남·보령·웅천·대창	김 남 수	노 경 모	오영중·홍순애·김금옥·조순자
8	비인교회	충남·서천·비인·성내	김 석 원	마 성 략	이태규·송경자·정금숙·최진숙
9	마차중앙	강원·영월·북면·마차리	윤 형 철	김 상 진	송명석·정수일·한정미·박영희

연합성가·연합수양회도

성가부는 교회설립25주년 기념음악예배를 위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매주 목·토요일에 제일·여성·제이성가대와 대학부 성가대가 연합으로 성가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발표할 곡목은 하이든의 「천지창조」 전곡이며 지휘는 제일성가대의 김연술 선생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제일·제이·여성성가대가 연합으로 하기수양회가 8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충현기도원에서 열렸다. 이번수양회는 대원들의 음악실기훈련과 신앙성장에 치중하게 되는데 부흥회 강사에 이동원목사, 특강강사에 백성룡목사를 모셨다.

호주에도 선교사 파송

—김태현 목사, 연말경 출국—

우리교회는 금년 말경 김태현 목사를 호주에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했다. 호주 멜버른시의 멜버른 한인교회의 담임목사로 가며 또한 우리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로 가게 되었다.

이번에 가게 될 호주는 백호주의국가로 타국인이 입국하기가 무척 어려운 국가인데 이처럼 선교사파송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섭리가 계신 것으로 믿어진다.

금년말경 출국하게 될 김태현 목사는 앞으로 멜버른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한국인 교인들의 영적 지도와 세계선교를 위한 선교거점확보등의 일을 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교회는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선교사, 이집트의 이연호 선교사 홍콩의 홍종만 선교사 서독의 육호기 선교사에 이어 5번째의 선교사파송이 되며 일본의 유병세 평신도선교사, 서독의 박용삼 평신도 선교사등 6나라에 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다.

종반기로 접어든 하기행사

78년도 하기행사가 종반기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7월13일 장로수양회로 막을 올린 교회내의 하기행사가 이미 종반기에 들어섰다. 예년보다 평균 2~3도가 높은 기온을 보인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열렬 열기로 모인 금년 하기행사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장로수양회에 이어 청년부수양회(7월17~18일), 권사회수양회(7월19일) 여전도회수양회(7월20,21일), 초등부·새신자부(여) 어린이 성경학교(7월24~27일), 중등부수양회(7월25~29일), 유년부성경학교(7월31일~8월3일) 장년부수양회(8월1,2일), 대학부수양회(8월1~5일), 고등부수양회(8월7~11일)이 이미 끝났고 이어서 초등부어린이수양회(5년학)이 8월14~17일, 영아부성경학교가 8월14,15일 8월 7~10일 까지의 유치부수양회 노년부수양회가 8월 21,22일을 마지막으로 한달 만에 걸친 모든 여름행사를 끝나게 된다.

금년에는 특히 우리교회기도원이 완공됨으로 1부주일학교를 제외한 모든 부서가 기도원을 이용 매우 뜻깊은 하기행사들을 마친다.

□ 주일 집회 및 헌금 통계

1978. 7. 6 현재(매월 첫 주 기준)

<집 회>

<헌 금>

구분	남	여	계	구분	남	여	계
예배	I부	169	350	519	주일	I	146,315
	II부	403	945	1,348		II	311,005
	III부	308	556	864		III	241,020
	IV부	75	160	235		IV	60,945
배	주일저녁	178	377	555	집 일 조		4,823,066
	삼 일	181	440	621	월 정		533,600
주	I	35	50	85		삼 사	350,500
	II	23	62	85	생 일		59,000
일	영 아 부	104	98	202		경 조	57,000
	유 치 부	97	88	185	진 축		3,448,007
학	유 년 부	167	164	331		새 신 자	3,295
	초 등 부	163	175	338	영 아 부		55,485
교	중 등 부	171	160	331		유 치 부	35,195
	고 등 부	158	144	302	유 년 부		33,550
회	대 학 부	78	80	158		초 등 부	34,130
	청 년 부	49	55	104	중 등 부		47,240
	장 년 부	23	263	286		고 등 부	75,360
	노 년 부	26	74	100	대 학 부		42,245
	산업교육부	50	125	175			
	계	2,458	4,366	6,824	계		10,357,978

□ 신급별 교인통계 □

남/여

총세대수	교인총수	세례교인	유 세	학 습	원 인
2,890	2,717/4,037	1,500/2,711	414/329	270/327	533/670

토막 소식

*...교회설립 25주년 기념행사로 성경암송대회를 8월 27일 갖는 데 작부 암송범위는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전장이다. 다만 영아부·유치부·유년부·초등부 한정된 것만 암송해도 된다.

*...교회에서는 8월 철야기도회를 11일 오후 10시부터 유년부실에서 가졌다.

*...영아부에서는 일곱번째 학부교육을 15~16일 양일간에 걸쳐 김득룡목사님을 모시고 영아부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유치부는 성가대 위트회를 5일 장충수영장에서 가졌다. 또한 교사들의 기도회는 기도원에서 7월28~29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가졌다.

*...유년부는 13일 타교회 전학을 학생 및 교사함등으로 실시하며 3과 주관으로 연구수업을 20일 가진다.

*...초등부에서는 장기결석자들에게 편지쓰기를 13일 유년부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연구수업을 20일 당회실에서 가진다.

*...중등부에서는 20일 노방전도를 서울 역전에서 가진다.

*...고등부에서는 7월28일 임원친교회를 일영에서 교사들과 함께 가졌으며 하기수양회 준비철야기도회를 7월31일 지하실에서 가졌다.

*...산업전도교육부에서는 교사특별회의를 5일 가졌고 20일에는 회원토론회를 새신자부실에서 김수성전도사의 사회로 가질 예정이며 26일에는 교사기도회를 영아부실에서 가진다.

*...대학부에서는 성가대 수양회를 14~15일 양일간 청산역상 수양관에서 가지며 25일에는 철야기도회를 영아부실에서 가진다.

*...청년부에서는 선교발표회를 6일 청년부실에서 가졌고 농어촌 전도대 결과보고회를 20일 가진다.

*...장년부에서는 하기수양회 준비기도회를 장년부실에서 7월26일 가졌다.

*...제이성가대는 7월23일(일) 오후 1시 30분 시내 세검동소재 청운양로원을 방문 예배와 위로의 순서로 노인들을 기쁘게 했다.

전도용 카세트테이프 보급 안내

김창인 목사 설교 녹음

충현교회 충현출판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도용으로 제작된 김창인 목사 설교녹음 카세트테이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종 류	보급가격	내 용
90분짜리	900원	설교를 포함한 예배순서 전체가 녹음됨
60분짜리	600원	설교만 녹음됨
녹 음	200원	카세트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녹음만 의뢰할 때

□ 송로는 별도/국내기준—1개 50원

※ 원칙적으로 보급가격은 설교녹음전도를 위한 현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급가격에 구애 없이 설교녹음전도를 위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녹음 카세트테이프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

-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일가 친척과 친구를 위하여
- 해외에 있는 친지나 성도 그리고 한국인 기술자들을 위하여
- 전후방 국군 장병들을 위하여
- 벽지의 농어촌교회 교역자들을 위하여
-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직장인 동료들을 위하여
-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위하여
- 교도소 보호소등과 같이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 그리고 메마른 나자신의 심령을 위하여

□ 주문 또는 안내서를 원하시면

100—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36 (전) 267—9937 · 9738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충현출판위원회

편집하고 나서

*...금년도 짧은 열정으로 온통 맘투성이가 되어 우리는 뛰었다. 예년보다 훨씬 더운 날씨가 계속되어 우리는 무척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열심으로 열심으로 했다. 이와같은 것들이 풍요한 결실을 가져오도록 계속적인 확인, 양육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농어촌과송전도에 대한 문제점을 특집으로 다루어 보았다. 특별히 편집실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다룬 농어촌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곳의 교역자, 신자들 또한 전도로 인한 결실자들로 나누어 실시된 설문이 객관화시킬 만큼 충분한 자료가

못되지만 단편적으로라도 현지에서 보는 서울에서 온 전도대에 대한 인상과 비판, 격려 등을 볼 수 있었다.

농어촌교회에 대해 이미 함께 명을 지기로 작정한 우리교회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탐구적이며 확실한 방법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양우 전도사의 글과 편집실의 글은 이런 관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8·15해방 33주년 되는 해이다. 국가와 교회,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 올바른 교회관 위에 바른 국가관을 살피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된다. 모두 일독하여 보다 확실한 우리의 자세를 확인하는 것도 이 해방일을 맞은 8월에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다.

□ 1978년 월간충현 조직 □

충현출판위원회

월간충현분과장/조현명

서기/조선근 회계/배옥인

분과위원/정상우 이성근 김차생

윤형철 박성수 정은표

이형수 오태용 고제원

이사례

주간/이성근 편집국장/이형수

간사/오태용 고제원

기자/성주진 정운명 유미숙 홍지향

김인숙

월간충현

8월호

제6권 통권 제56호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조 현 명

주간/이 성 근

편집국장/이 형 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67—9937·9738

269—7726(편집실)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8년 8월 13일 발행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제 7 회 농어촌지도자 초청훈련이 7월13~17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었다.



교회내의 여름행사가 장로수양회(7/13~15)를 비롯하여 새로지는 중현기도원에서 있었다.



여전도회는 금년 처음으로 여전도회 수양회를 중현기도원(7/20~21)에서 가졌다.



제 8 회 청년부 하기 수양회가 김진택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7월17~19일에 열렸다.



윤형철 전도사님을 강사로 모신 중등부 수양회가 32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7/25~29 중현기도원).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본 교회당에서 있었던 제 25회 여름어린이성경학교(유년부).



〈출발하기 앞서 당회장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농어촌 전도파송 대원들〉

실로암
못가에서

-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